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이 한없이 편합니다"

"어려운시기 극복 하려면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세요"



◇1934년 백양사 대교과에서 수학하던 도반들과 함께한 법천스님(왼쪽에서 첫번째)

서 열매만 따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고 먹고사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쉽게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을 때일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참다운 즐거움이나 행복은 느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실직으로 수입이

위의 주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도 중요한 행위의 주체인 '나'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 보지 않습니다.

'나'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삽니다. 이 몸뚱이를 살찌우려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 주는 등 여러가지 이익되는 일들을 모두 합니다.

또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서 웃고 기뻐하고 마음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들은 이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쓴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갖가지 생활양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프고 병들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다시 말해 마음에 그 요소를 심으면 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음이 씨를 뿌려 몸이 재앙을 받는다(作材心 殃在身)는 말이 딱 맞는 듯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멀리 성인들에게서만 구하려하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만약 '마음 밖 다른 곳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굳게 고집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와같은 사람은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며 피를 뽑아 경전을 쓰고 밤낮으로 눕지 않으며 하루 한끼만 먹고 팔만대장경을 줄줄 외며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보탬도 없이 수고롭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성이 자기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마음을 닦는다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여래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시고 "모든 중생의 갖가지 허망된 생각이 다 여래의 원각묘심에서 일어난다"고 하셨던 것이지요. 이 마음을 떠나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은 가정대로 병들고, 사회는 사회대로 병들어 그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우매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마음, 깨끗한 마음, 삼독에 물들지 않은 마음, 번뇌의 불꽃이 조금도 연기를 내지 않는 그러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을 얻을 수 있으며,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만이 작은 것에서 풍족함을 느끼고, 항상 제 분수를 알아서 과욕하지 않는 참생활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몸 받기 전 진면목은 무엇인가(父母未生前 是何面目).' 당대의 대강백 백학명 스님을 3년간 시봉하면서 받은 화두입니다. 나는 이 화두를 평생의 버팀목으로 삼아왔습니다.

나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항상 참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는 삶이라 늘 편안할 것입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을 믿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부처님 법을 닦아나가다 보면 어려움도 극복하고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실의에 빠져 있는 가장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고 합니다. 미래는 시간의 빈 그릇과 같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으나 그 시간의 그릇은 우리들 자신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채워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위해 살며, 희망을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충실한 삶을 준비하는 봄을 맞으세요.

위음왕불(威音王佛)의 상법말(像法末)에 한 보살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보살은 욕설로 꾸짖고 막대기나 기왓장 돌멩이로 때리고 하는 못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들을 향해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장차 불성을 계발해 부처님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 '상불경(常不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불경 보살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성(佛性)이 갖춰져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심(下心)'하도록 하게 하죠.

남을 이기고 쟁취하려고만 들지 마세요. 먼저 마음을 열고 상불경보살처럼 상대방에게 숨겨져 있는 장점만을 보고 차별심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가볍게 여김을 당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땀 흘리지 않고 행복 얻으려하면 도둑심보 심은대로 거두는 인과법 알고 실천해야"

없어 생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항시 마음을 부처님 마음에 대고 사십시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천양지차지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모든 선근(善根)을 거기서 길러낸다.' 또 유식(唯識)에서는 '믿음은 물을 맑히는 구슬(水精球)과 같은데, 그것은 흐린 물을 맑히는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항시 자비스럽고 청정하게 부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와 믿음을 갖고 화두를 들어 보십시오.

'나'란 무엇입니까? 삶을 이어가는 행

육조단경과 경전 49





원 철
은해사 승가대학원

중국 선사의 어록중에 유일하게 '경(經)' 대접을 받는 것이 혜능(慧能 638~713)스님의 〈육조단경〉이다. 〈단경〉은 그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법을 전해받는 입지전적인 흥미진진한 구성과 탁월한 안목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널리 읽혀져 왔다. 〈단경〉을 처음 만난 것은 탄허스님 번역본에 의해서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육조스님의 머리가 동쪽으로 건너와 쌍계사에 모셔져 있다는 신앙성이 함께 결부되어 더욱 많이 읽혀졌다. 그러한 '징상동래설(頂相東來設)' 이야기가 부록의 형태로 실려 있는 덕이본 단경이 단연 인기 제일이었다. 탄허스님의 번역본 역시 덕이본(德異本)이다.

돈황본 〈단경〉을 알게된 것은 당시 해인총림 방장이던 성철스님의 법문을 통해서였다. 성철스님은 원본인 돈황본을 통해서 〈단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스님의 '단경지침'이라는 특강을 1987년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전국 선화자(禪和子)대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전국선화자대회는 초심납자들의 공부길을 제시해주기 위한 특강형식으로써 4강좌중 2강좌가 〈육조단경〉이었다. 〈육조단경〉 본강의는 당시 봉암사 조실이던 서암스님께서 하셨는데 그 교재가 덕이본 단경이었다. 한 법석에서 돈황본과 덕이본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인연을 갖게된 것이다. 그로부터 단경이 총문(宗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육조단경제본집성(六祖壇經諸本集成)'이라는 제목으로 여섯가지 판본을 모아놓은 필사영인본도 접하게 되었다.

1993년 〈육조단경〉을 자세히 살펴야 할 사정이 생겼다. 돈황본만으로는 단경의 그 고유성과 독자성을 헤아리기 어려워 새로 교재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가장 원본으로 추정되는 돈황본과 가장 대중성있는 덕이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사상적인 변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구절 구절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때 마침 컴퓨터가 사찰에도 들어오기 시작한지라 돈황본과 덕이본을 각각 입력시켜 서로 대조하여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하였다. 서문은 덕이본의 법해스님 찬(撰)을 그대로 쓰고 성철스님의 단경지침은 맨 뒤에 발문 형식으로 달았다. 이렇게 만든 책 제목을 〈이본대조 육조단경(二本對照 六祖壇經)〉이라 붙였다.

〈육조단경〉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자기 내면세계까지 천착해 가는 치열한 안목이 군데군데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경〉의 독특한 관점은 자성불(自性佛)의 강조이다. 삼귀의 역시 기존의 '불법승 삼보의 귀의'를 '자성삼보귀의'라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즉 '佛이란 깨달음이요, 法이란 바름이요, 僧이란 깨끗함'이라고 정의한 후 '자기 마음의 깨달음에 귀의하고 자기 마음의 바름으로 돌아가고 자기 마음의 깨끗함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 이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라는 사홍서원 역시 '자성중

혜능스님 어록…자성불 강조 돈보여 돈황본·덕이본 대조 새교재 만들어

생서원도(自性衆生誓願度) 자성번뇌서원단(自性煩惱誓願斷) 자성법문서원학(自性法門誓願學) 자성불도서원성(自性佛道誓願成)'으로 재해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내면의 자성세계까지 제도해야 제대로 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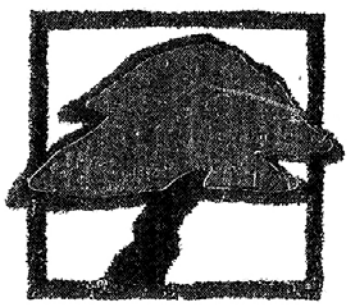
계(戒) 또한 '심지무비자성계(心地無非自性戒)', 즉 '내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을 진정한 계'라고 하여 형식적인 외형의 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내면적인 계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진정한 계임을 알려주고 있다. 〈단경〉에서는 모든 것을 자성의 문제로 귀착시켜 수행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삼학설(三學說)의 경우 기존의 계율의 실천에 의해 선정을 얻고 선정의 실천에 의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통설에 대하여 삼학의 점차적 순서를 무시하고 삼학을 하나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여 이것을 돈오설(頓悟說)에까지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신수(606~706)의 북종선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혜능선(慧能禪)의 사상적 완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남종선의 독자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 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東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육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